



1896년 우리나라 최초 잡지인 『대조선독립협회보』를 시작으로 근현대의 다양한 잡지에 이르는 100여년의 역사를 갖는 우리 잡지, 그동안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역사 속 잡지들이 사람들 앞에 그 모습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희귀잡지와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추억의 그 잡지]展. 한국 잡지의 발자취를 따라 역사 속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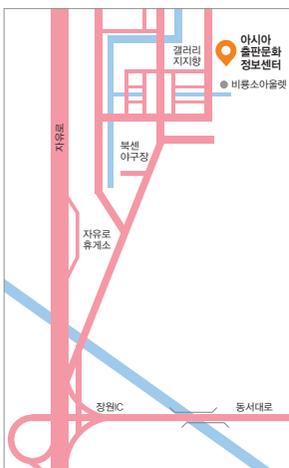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2012. 9. 15(토)~23(일) : 10:00~18:00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2012. 9. 25(화)~ : 09:00~18:0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시 교하읍 회동길 145



서울에서
자유로(문산, 통일동산 방향)를 타고 이산포 IC 기점으로 약 7Km지나서 출판도시 진입로를 따라 우측으로 진입.

문산방향에서
자유로(서울방향)를 타고 문산 IC로 진입하여 오른쪽 진출로로 나서서 출판도시 표지판을 따라 우측으로 진입.

대중교통
200번 합정역 - 일산신도시 - 덕이동 - 교하신도시 - 출판도시
2200번 합정역 - 출판도시(자유로 직행)
9000번 영등포 타임스퀘어 - 당산역 - 출판도시 - 금촌

● 국립중앙도서관 서초구 반포대로 201



지하철
2호선 서초역(6번출구)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 도보 15분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5번출구)에서 예술의전당(서초역) 방면 도보 10분

버스
간선(파랑)버스 405,740
지선(초록)버스 5413
서울성모병원, 또는 대검찰청 하차 후 도보 5분



시대를 읽는 또 하나의 시선 추억의 그 잡지



시사지 <신동아> 배경, 여성지 <女苑> 창간호 표지 그림



개화기에서 현대까지,
한국잡지의 발자취를
한눈에 조망하다

계몽, 학술, 종교, 정치,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내세운 학술영역뿐 아니라, 대중성과 오락성, 시사 및 생활정보에 이르기까지 잡지는 우리 시대 구석구석을 폭넓게 조명해 왔으며 이러한 잡지의 변천사를 통하여 그 시대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잡지,
그 이상을
이야기하다



잡지는 그 이름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이름 뒤에는 시대 전반의 더 큰 이야기가 숨어있다. 이러한 잡지의 흐름을 통해 국내외 정치·사회적인 배경뿐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생활양식 등을 구석구석을 엿보면서, 잡지속의 시대와 시대속의 잡지를 한올한올 더듬어 풀어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잡지 안의 감초,
광고와 만화로
시대를 읽다



상업과 예술을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온 광고, 희극과 비극의 경계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린 잡지 만화. 이러한 광고와 만화의 변화를 통해 어떤 시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추억의 그 잡지]展의 부록같은 재미가 될 것이다.

